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6.01~26.06.30)

□ 경관 에어리어 리노베이션 사업의 시범 도시를 선정 [7/1]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6년 5월 27일 공포된 경관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양호한 경관이 형성되지 못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경관 에어리어 리노베이션 사업(경관재생 사업)」을 신설함
- 이 사업은 시정촌 등이 전문 노하우를 가진 민간회사를 경관정비추진법인으로 지정하고 건물 소유자와 협정을 맺어 소유주 대신 건물을 개수하거나 활용함으로써 면적인 경관재생을 도모하는 제도임
-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① 소유주를 대신해 경관정비기구 등 지정된 민간 법인(민간 마을만들기 회사 등)이 협정을 맺고 건축물을 장기 임대하여 리노베이션 및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원함. ② 에어리어 일대의 기존 건축물군을 연쇄적으로 개수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 등 자금 조달을 돕는 다방면의 지원책을 검토·제공함. ③ 역사·문화적 자산과 연계하여 지역 고유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며, 오피스·호텔 등 거점 시설의 중심시가지 유도를 도움
- 국토교통성은 제도 시행과 발맞추어 선도적인 경관재생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나라현 이코마시를 첫 번째 모델 도시로 선정하고 맞춤형 밀착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함. 모델 도시로 선정된 나라현 이코마시의 호잔지 참도는 타이쇼 시대부터 호잔지의 몬젠마치(절 앞에 형성된 마을)로 형성되어 옛 거리의 정취와 신앙이 숨 쉬는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한 역사적 지역임. 최근 참도 주변의 여관이나 점포 등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름다운 조망과 전통적인 가옥 형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재생 기대감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함. 이에 따라 이코마시는 호잔지 참도의 정취 있는 경관을 되살리기 위해 협동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민연계방안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도입 단계에 착수함
- 향후 이코마시는 경관정비추진법인이 될 수 있는 유망 사업자를 탐색하고 지역 주민과의 합의 형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경관계획 수립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임. 국토교통성은 이코마시를 시작으로 향후 경관 에어리어 리노베이션 사업의 모델 도시를 수시로 추가 선정하여 동행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아울러 이번 선도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임

□ 2026년도 해외 인프라 전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모집 개시 [7/1]

- 일본 국토교통성은 세계 각국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반사단법인 국제건설기술협회가 주최하는 「2026년도 해외 인프라 전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 이번 프로그램은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건설·개발 컨설턴트, 시공사, 제조사, 관공서 등의 기술계 및 사무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학자들이 강사로 나서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외 인프라 수주 및 진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케이스 스터디(사례 연구) 연습을 제공하며, 실무 경험이 있는 기술·사무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에서 마주하는 계약 이슈, 납기 지연, 안전 문제 등의 해결 스킬을 집중적으로 훈련함
- 해당 교육은 해외 인프라 사업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산·학·관 협동조직인 해외 인프라 전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주도로 운영될 예정임
- 본 양성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며 모든 일정은 전면 대면 소집방식으로 운영됨. 모집 대상자는 향후 관련 해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 현직 직원으로, 해외 근무 경험은 무관하나 대략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를 권장하며 총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임

□ 제35회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 개최 [7/2]

-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은 양국 간의 도시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83년 6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제35회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13시 15분부터 17시 15분까지 도쿄 미타 공용회의소 제1특별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미우라 이츠히로 대신관방심의관(도시·주택 담당)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이기봉 도시정책관 등 양국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았음
- 본 회의는 양국의 실정에 맞춘 핵심 정책을 공유하는 총 4개의 주제별 세션으로 세분화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음. 세션 1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을 주제로 입지적정화계획 제도와 인구동태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 재구축 방안을 공유했으며, 세션 2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 조성 및 구도심 재생 사업 등 실질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다루었음. 세션 3에서는 도시 녹화 조치와 함께 일본의 'GREEN×EXPO 2027' 개최 계획 및 한국의 도시공원 계획이 발표되었고, 마지막 세션 4에서는 일본의 3D 디지털 트윈인 Project PLATEAU와 한국의 AI 시티 전략 등 미래 도시 비전이 제시되었음
- 한편 이번 정식 본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 대표단은 국토교통성을 방문하여 나카다 도시국장을 예방하고 양국의 언어를 섞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함. 아울러 일련의 공식 일정 중 하나로 일본의 대표적인 성공적 도시 재개발 현장인 아자부다이 힐즈와 누벨 아카바네다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정밀 시찰하는 기회도 가짐
-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한층 더 확고히 유지하기로 뜻을 같이함

□ 스몰 컨세션 지침 실천 해설 세미나 [7/3]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스몰 컨세션(*)의 권장(유휴 공적 시설의 이활용을 위한 지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정책의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번 안내를 기획함.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유휴 공적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노하우와 선진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이 이번 행사의 추진 배경임
-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유휴 공적 시설의 이활용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몰 컨세션 지침 실천 해설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섬

- 본 세미나는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진행되며, 전면 온라인 화상 회의(Zoom 웨비나)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임. 스몰 컨세션 플랫폼 회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리노베이션과 지역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상세 프로그램은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사회자본정비정책과가 진행하는 제도의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됨
-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지침의 핵심 포인트 해설과 함께 현업 실무자 및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크 세션이 심도 있게 전개될 예정임. 주요 패널로는 야마구치현 하기시 상공관광부의 나카무라 코지 관광정책과장, 주식회사 아타시샤의 우에노 카요코 대표 이사,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비서정책과의 노미야마 토루 과장보좌 등이 등단함. 또한 스몰 컨세션 플랫폼 운영위원들도 코멘테이터로 참여해 전문적인 조언을 더할 예정임
- ※ 스몰 컨세션 : 지자체 소유의 폐교나 고택 등 소규모 유휴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소규모 관민 협력(PPP) 사업. 민간의 자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설을 리노베이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임

□ 2026년도 빈집대책 시범사업 채택 대상을 결정 [7/8]

- 일본 국토교통성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대책을 더욱 가속화하고자 민간 사업자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NPO나 민간 기업 등이 제안한 독창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빈집대책 프로젝트를 선발해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빈집대책 시범사업」을 기획함
- 사업의 테마는 ① 관민 연계를 통한 독창적인 빈집 상담대응 충실, ② 빈집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③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수요에 맞춘 빈집 활용, ④ 빈집에 관한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 정비와 AI, 디지털 등 신기술의 활용, ⑤ 상속 빈집이 급증할 것을 대비한 실태파악의 5가지 테마에 대해 제안을 받음
- 이에 따라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대상을 확정해 발표함. 이번 공모에는 총 117건의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심사 결과 최종 36건의 참신한 혁신 사업들이 최종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됨. 최종적으로 테마 1은 5건, 테마 2는 11건, 테마 3은 12건, 테마 4는 6건, 테마 5는 2건을 채택함
- 채택된 사업에 대해 조사검토, 계획수립, 보급홍보에 필요한 비용은 정액, 빈집 개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1/3, 빈집 철거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2/5, 철거 후 토지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1/3을 보조함

□ 국토교통성 PPP 서포터 모집 개시 [7/9]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등이 국토교통성 소관 분야의 PPP/PFI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상담 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음.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금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PPP/PFI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성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성 PPP 서포터」 모집을 전격 시작함

- 국토교통성 PPP 서포터는 △ PPP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노하우가 부족한 지방자치 단체에 기획, 타당성 조사, 리스크 분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함, △ 국토교통성이 주최하는 매칭 이벤트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특정 공공 프로젝트에 적합한 민간 기업(건설사, 금융기관, 운영사 등)을 연결함. △ 지역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도로·공원·수도·공공청사 등 유휴 자산을 활용한 민간 투자 사업 모델을 제안함
- 기업이나 전문가 개인 입장에서 국토교통성 PPP 서포터로서 활동하면 국토교통성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초기 단계의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음. 지자체의 고민을 먼저 듣고 사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식 입찰이나 공모에서 유리한 고지(선점 효과)를 차지할 수 있음
- 지원 자격은 제도 요강을 충족하는 지자체,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 또는 학식 경험자로 소속 조직 안팎의 추천을 모두 받은 전문가로 제한됨. 아울러 지원자는 PPP/PFI 총론을 비롯해 공원, 공항, 상하수도, 도로, 주택, 항만, 하천, 스물 컨세션 등 국토교통성 소관 8대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이번 서포터 모집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31일 17시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만 이루어짐. 선발 절차는 서류 마감 이후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지원 자별 순차적 인터뷰(청취 조사)를 진행한 뒤, 8월 하순 최종 인정 단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식적인 자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임

□ 2026년도 소유자 불명 토지 등 대책 모델 사업을 채택 [7/13]

- 일본 국토교통성의 '소유자 불명 토지 등 대책 모델 사업'은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방치된 토지·빈터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선도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임
- 일본 국토교통성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와 이용률이 낮은 토지의 원활한 이용 및 적정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 특히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 이러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추진법인의 지정을 원활히 하는 선도적 사례의 발굴이 시급하다는 배경이 작용함
-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민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고 그 성과를 향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소유자 불명 토지 등 대책 모델 사업'을 기획함. 소유자 불명 토지 등 대책 모델 사업은 △ 소유자 불명 토지 대책 및 빈터 활용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함. △ 사법서사, 토지 가옥 조사사 등 법률·기술 전문가에게 지출하는 조사 및 자문 비용 지원. △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원활화 등 추진법인'의 지정을 목표로 하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 경비 지원
-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를 진행함. 이번 공모 행사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과 일반사단·재단법인 및 민간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지원서가 접수되며 깊은 관심을 모았음
- 국토교통성은 공모 접수작 중 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국가 직접 지원 대상 사업으로 채택해 발표함

□ 2026년 일본·베트남 교류회의 개최 [7/14]

-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국은 베트남 건설성 도로총국 등과 함께 양국 간 도로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로 분야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해 왔음. 그러나 해당 회의는 2019년 7월 개최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장기간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음. 이후 2023년 일·베트남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해각서를 성공적으로 갱신하였으며, 이러한 협력 강화 흐름 속에서 마침내 긴 공백을 깨고 양국의 도로 기술 교류를 심화하기 위한 공식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일본합동청사 2호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일·베트남 도로교류회의'를 전격 개최함
- 이번 회의에는 일본 측에서 국토교통성 도로국의 쿠츠카게 토시오 국장과 토미야마 히데노리 대신관방 심의관 등이 참석하였고, 베트남 측에서는 건설성 도로총국의 부이 랑 타이 국장 등 주요 정책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함
-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도로의 적정 유지 관리를 위한 혁신 정보기술, 친환경 재생 아스팔트 공법,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사장교의 안전 유지 관리 기법 등 3대 핵심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룸
- 세부 회의 과정에서는 각 의제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상세한 정책 설명과 기술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최신 도로 정비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활발한 질의응답이 전개됨. 이번 행사를 통해 양측은 기후 변화와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도로 관리 기술과 현장 지식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둠. 아울러 양국은 급변하는 도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단절 없이 도로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우호적 관계를 견고하게 지속해 나가기로 최종 합의함

□ 건설공사분쟁취급상황(2025년도) [7/15]

- 일본 국토교통성의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건설업법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까지 가지 않고 간이하고 신속하며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외 분쟁해결기구임. 동 심사회는 국민들에게 심사회의 실제 활동 상황을 널리 알리고 건설 분쟁 해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도도부현별 심사회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분쟁 처리 실태를 정밀 조사해 발표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심사회는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접수 및 처리된 건설 관련 갈등 현황을 분석한 2025년도 건설공사 분쟁 취급 상황 결과를 취합해 공식 공표함
- 발표된 세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도 한 해 동안 일본 전국(중앙 및 도도부현 합산)에서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16건으로 전년 대비 7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직전 연도에서 이월된 미결 사건 94건을 더한 전체 처리 대상 중 당해 연도에 최종 종결된 사건은 총 111건이며, 이에 따라 차기 연도로 이월된 미결 건수는 99건으로 기록됨. 전국의 신청 사건들을 청구 당사자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개인 발주자가 원도급자(수급인)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4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분쟁의 원인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등 공사 하자 관련 갈등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음
- 반면 국토교통성에 설치되어 비교적 규모가 큰 분쟁을 다루는 중앙심사회 단독의 신청 건수는 총 25건으로 전년 대비 7건 감소한 양상을 보임. 중앙심사회는 전년 이월건 27건을 합친 상태에서 당해 연도 중 29건을 종결지으며 차기 이월 건수를 23건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둠. 중앙심사회 신청 건을 당사자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대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갈등의 세부 유형에서는 공사 하자, 공사 대금 분쟁, 하도급 대금 분쟁이 각각 6건씩 동률을 이루며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국토교통성은 이 같은 분쟁 해결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하여 공정한 건설 거래 환경을 확립해 나갈 방침임

□ 현장 퍼스트 운동을 추진 [7/15]

-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을 비롯한 관계 성청은 전기와 가스 등 사회 기반을 지탱하는 주요 인프라 분야에서 현장이 직면한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설회사 등 협력회사의 인재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발주자, 원도급자,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고자 현장 퍼스트 운동(Frontline First Initiative, 이하 FFI)을 전격 개시함
- 현장 퍼스트 운동은 ① 인재확보 및 처우 개선, ②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건설로 구성됨. ① 인재확보 및 처우 개선 액티비티는 △ 건설업 캐리어업 시스템(CCUS) 연동 및 등급별 보상 체계 수립, △ 하도급 단계별 적정노무비 지급 모니터링, △ 3대 인재보장법 전국 설명회, △ 현장맞춤형 리스킬링 캠페인이 포함됨. ②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건설 액티비티는 △ 원격 입장 및 스마트검사, △ 데이터 입력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시보드 구축, △ 단순 반복-위험 작업의 자동화(AX) 등이 포함됨
- 정부는 해당 운동을 통해 지원 제도의 활용을 돕고 업종을 초월한 우수 혁신 사례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범국민적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기반을 다질 예정임
-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양 부처는 FFI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킥오프 이벤트로 2026년 7월 14일 제1회 FFI 관민 연계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이번 첫 포럼에서는 관계 성청과 산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프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실행 의지를 다짐

□ PLATEAU 비전 2026 공표 [7/17]

- 국토교통성에서는, 도시의 과제 해결이나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목적으로, 3D도시모델의 정비·활용·오픈 데이터화의 대처인 「Project PLATEAU」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의 대처가 시작된 이래, 2025년도 말 시점에서 329개 도시에 있어서 3D도시모델이 정비되어 마을 만들기나 방재를 중심으로 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처의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진전을 향해서는, 모델 도입의 밑단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도시 정책에 있어서의 활용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에서는, 「PLATEAU 비전 2026」을 공표함. 이 비전에서는 ① 데이터 정비·갱신의 효율화, ② 서비스 실장의 추가 추진, ③ 국외로의 도시 디지털트윈 전개의 3개를 향후의 대처에 있어서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설정하고, 주력해야 할 서비스 분야나 산학관에서의 추진 체제, 목표, 액션 플랜을 정리하고 있음
- 특히, 지속적인 데이터 정비나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일상적 활용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데 있어서는, 종래 대상으로 해 온 「3D도시모델」의 범위를 확장하고, 속성정보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데이터도 취급함으로써 다양한 요구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선택·활용 환경의 구축을 추진하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음
- 또,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하는 「①데이터 정비·갱신의 효율화」를 향한 기술개발 대처의 제1탄으로서는, 위성 이미지나 스마트폰 이미지와 AI를 활용한 3D도시모델의 자동생성 및 텍스처 자동부여 기술의 개발을 실시했음. 이를 통해 모델 정비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디지털트윈의 지속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추가적인 기술개발도 임하고 있음